I 시

본문 014쪽

01 일차 필수 개념 비유: 직유 / 은유

직유법 찾기 1. 살 껍질처럼 2. 검정 양말 3. ○

필수 개념 ❶ ③

개념 적용하기 검정 양말, 보조

은유법 찾기 1. 밤하늘은 / 별들의 운동장(이다), (유성은) 빗나간 야구공(이다) 2. ○

필수 개념 ❷ ③

개념 적용하기 밤하늘, 야구공, 원

필수 개념 ❶ 직유

답 ③

맨발 | 김기택

작품 해설 이 시는 일상에서의 경험을 참신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화자는 고단한 하루 일상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와 답답했던 구두와 양말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디뎠을 때 편안함과 시원함을 느낀 경험을 다양한 비유와 심상(이미지)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특히 구두와 양말에서 해방된 맨발이 스스로 신발이 되는 경지에 이른다는 발상이 기발하다.

주제 맨발의 자유로움과 편안함

작품 꼼꼼 강의

1연 집에 돌아오면
시적 상황: 화자가 고단한 일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옴.

2연 하루 종일 발을 물고 놓아주지 않던
활유법: 무생물인 가죽 구두를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
가죽 구두를 벗고
□: 맨발의 자유를 구속하는 존재
살 껍질처럼 발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던
직유법: '검정 양말'을 연결어 '처럼'을 사용하여 '살 껍질'에 빗댐.
검정 양말을 벗고 ▶ 집에 돌아와 구두와 양말을 벗음.
색채 이미지

3연 발가락 신발 / 숨 쉬는 살색 신발
색채 이미지
투명한 바람 신발 / 벌거벗은 임금님 신발
: 은유법(원관념 – 맨발), 열거법, '맨발'의 가볍고 자유로운 느낌을 표현

4연 맨발을 신는다. ▶ 맨발이 되어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낌.
자유롭고 편안한 '맨발'을 신발처럼 신는 것으로 표현

3연에서 화자는 '발가락 신발, 숨 쉬는 살색 신발, 투명한 바람 신발, 벌거벗은 임금님 신발'을 열거한 후, 4연에서 '맨발을 신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3연에 나열된 대상은 모두 '맨발'을 빗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발가락 신발'은 '검정 양말'이 아니라 '맨발'을 나타내는 보조 관념으로 사용된 것이다.

오답 챙기기

①, ② '검정 양말'이 '살 껍질'처럼 발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표현하려는 대상, 즉 원관념은 '검정 양말'이고, 빗대는 대상인 보조 관념은 '살 껍질'이다. 그리고 '살 껍질'과 '검정 양말'은 '처럼'이라는 연결어로 결합되어 있다.

④ '발가락 신발, 숨 쉬는 살색 신발, 투명한 바람 신발, 벌거벗은 임금님 신발'은 모두 원관념인 '맨발'을 빗대어 표현한 보조 관념들로, 가볍고 시원하며 자유로운 느낌을 주고 있다.

⑤ '검정 양말'이 '살 껍질'처럼 발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표현하였으므로, '검정 양말'과 '살 껍질'은 발에 달라붙는다는 비슷한 속성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수 개념 ❷ 은유

답 ③

유성 | 오세영

작품 해설 이 시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들의 함성을 상상하다가 유성(별똥별) 하나가 지상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순간을 비유적 표현과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광활한 우주의 일부분으로서의 지구를 깨닫게 하는 경이로운 장면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주제 밤하늘의 아름다운 모습과 유성의 생동감

작품 꼼꼼 강의

밤하늘은 ■: 은유법
별들의 운동장
반짝이는 별들의 역동적인 모습. 원관념: 밤하늘, 보조 관념: 별들의 운동장
오늘따라 별들 부산하게 바자닌다.
: 의인법. 별들이 사람처럼 운동회를 하고 함성을 지른다고 표현함.
운동회를 벌였나
아득히 들리는 함성. ▶ 1~5행: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의 모습
청각적 이미지
먼 곳에서 어슴푸레 빈 우레 소리 들리더니
청각적 이미지
빗나간 야구공 하나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야구공에 빗댐. 원관념: 유성, 보조 관념: 빗나간 야구공
쨍그랑 □: 의성어, 청각적 이미지, 대상을 실감 나게 표현함.
유리창을 깨고
지구의 대기를 뚫고
또르르 지구로 떨어져 구른다.
▶ 6~10행: 밤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의 모습

'함성'은 화자가 별들이 내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운동회'를 '함성'에 빗대고 있지 않다.

오답 챙기기

①, ② '밤하늘은 / 별들의 운동장'이라고 하였으므로 '밤하늘'은 원관념이고, '별들의 운동장'은 보조 관념이다. 또한 'A(밤하늘)는 B(별들의 운동장)이다'의 형식으로 빗대고 있으므로 '밤하늘'을 '별들의 운동장'에 특별한 연결어 없이 빗대고 있다.

④, ⑤ '빗나간 야구공 하나'가 '지구로 떨어져 구른다.'라고 하였으므로 '빗나간 야구공'은 이 시의 제목인 유성(별똥별)을 비유한 보조 관념이다. 즉 'A(유성)는 B(빗나간 야구공)이다'의 형식으로 특별한 연결어 없이 빗댄 은유법이 사용되었으며, '야구공'과 '유성'은 떨어진다는 비슷한 성질을 통해 연결되고 있다.

본문 016쪽

01 일차 실전 비유: 직유 / 은유

01 ④　02 ①　03 ①　04 ㉠: 꽃가루, ㉡: 금방울

개념 적용하기 직유, 눈, 보조, 은유, 고양이

작품 한눈에 고양이, 도다, 후각, 봄

01 ~ 04

봄은 고양이로다 | 이장희

작품 해설 이 시는 고양이에 대한 섬세하고 치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봄과 고양이의 유사점을 다양한 이미지와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고양이의 털, 눈, 입술, 수염에 각각 봄의 향기, 불길, 졸음, 생기가 연결되어 있으며, 정적인 분위기의 1, 3연과 동적인 분위기의 2, 4연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의미 전달보다는 대상의 이미지 전달을 중심으로 한 감각적인 언어 표현이 돋보이는 시이며, 각 연이 유사한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통일감과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주제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 연상되는 봄의 감각과 분위기

작품 꼼꼼 강의

(형광 표시: 직유법)

1연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촉각적 이미지)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 고양이의 털 – 봄의 향기
(후각적 이미지, 봄의 포근함) (□: 동일한 종결 어미 '-도다'의 반복, 운율 형성)

2연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시각적 이미지)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 고양이의 눈 – 봄의 불길
(시각적·역동적 이미지, 봄의 생명력)

3연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 고양이의 입술 – 봄의 졸음
(촉각적 이미지, 봄의 나른함) (□: 동일한 종결 어미 '-아라'의 반복, 운율 형성)

4연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시각적 이미지)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 고양이의 수염 – 봄의 생기
(시각적 이미지, 봄의 약동감)

01 작품의 종합적 감상 답 ④

이 시는 고양이를 통해 느껴지는 봄의 특징과 분위기를 노래한 작품으로, 논리적인 생각보다는 감각적인 표현과 느낌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오답 챙기기

①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또한 제목인 '봄은 고양이로다'에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② 1, 2연은 '~에 ~도다', 3, 4연은 '~에 ~아라'라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통일감을 주고 있다.

③ 이 시는 고양이에 대한 섬세하고 치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⑤ 고양이의 털, 눈, 입술, 수염을 통해 향기, 불길, 졸음, 생기라는 봄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02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 파악 답 ①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고양이의 털'에서 고운 봄의 향기를 느끼고 있다. '꽃가루'는 화자가 '고양이의 털'에서 연상한 것이지, 화자가 '고양이의 털'에 '꽃가루'가 붙은 것을 본 것은 아니다.

오답 챙기기

② 2연의 '고양이의 눈에 /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고양이의 눈'에서 봄의 불길을 보고 있다.

③ 3연에서 화자는 고양이의 다문 입술에서 봄의 졸음, 즉 봄의 나른함을 느끼고 있다.

④ 4연에서 화자는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서 푸른 봄의 생기, 즉 봄의 생동감을 느끼고 있다.

⑤ 이 시에서 화자는 고양이의 털, 눈, 입술, 수염 등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봄의 분위기(봄의 향기, 불길, 졸음, 생기)를 느끼고 있다.

03 비유적 표현 이해 비유: 직유 / 은유 답 ①

이 시의 제목 '봄은 고양이로다'에는 '봄'(원관념)을 '고양이'(보조 관념)에 빗댄, 'A(봄)는 B(고양이)이다' 형식의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①의 '달은 / 마음의 숫돌'에도 '달'(원관념)을 '마음의 숫돌'(보조 관념)에 빗댄 'A(달)는 B(숫돌)이다' 형식의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챙기기

② '그날이 오면'에서 상황을 가정하여 나타내는 가정법이 사용되었다.

③ '부끄럼같이', '물결같이'에서 '같이'라는 연결어를 통해 직접 빗댄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④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에서 시각적 이미지, 색채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⑤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를 되풀이하는 반복법이 사용되었다.

04 비유적 표현 이해 비유: 직유 / 은유 답 ㉠: 꽃가루, ㉡: 금방울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는 원관념인 '고양이의 털', '고양이의 눈'을 연결어 '같이'를 통해 보조 관념인 '꽃가루', '금방울'에 직접 빗댄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본문 019쪽

어휘 확인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본문 020쪽

02 일차 필수 개념 비유: 의인 / 활유

의인법 찾기 1. ○ 2. 그래 잘 가거라 내 아들아. 이제부터는 크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단다.

필수 개념 ① ④

개념 적용하기 강물

활유법 찾기 1. 여우비, 메아리 2. ○

필수 개념 ② ④

개념 적용하기 메아리

필수 개념 ① 의인

답 ④

성장 | 이시영

작품 해설 이 시는 의인화된 '어린 강물'과 '엄마 강물'이 바다를 만나 이별하게 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연과 행의 구분이 없이 쓰인 산문시이다. '크고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어린 강물' 못지않게, 아들을 보내고 '시린 몸'으로 돌아와야 하는 엄마 강물의 성장도 깊은 울림을 준다.

주제 성장에 대한 두려움과 성장을 위한 이별

작품 꼼꼼 강의

바다가 가까워지자 어린 강물은 엄마 손을 더욱 꼭 그러쥔 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거대한 파도의 뱃속으로 뛰어드는 꿈을 꾸다 엄마 손을 아득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내 아들아. 이제부터는 크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단다. 엄마 강물은 새벽 강에 시린 몸을 한번 뒤채고는 오리처럼 곧 순한 머리를 돌려 반짝이는 은어들의 길을 따라 산골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 성장에 대한 두려움과 성장을 위한 이별

'거대한 파도의 뱃속으로 뛰어드는 꿈'을 꾼 것은 '어린 강물'이다. 따라서 '엄마 강물'이 '어린 강물'을 따라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한 것은 작품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챙기기

①, ② '어린 강물'은 사람이 아닌 '강물'을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다. 또한 '어린 강물'이 꿈을 꾼다거나 엄마 손을 꼭 그러쥔다고 하여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으므로 의인법에 해당한다.

③, ⑤ '엄마 강물'은 사람이 아닌 '강물'을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 하여 사람처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엄마 강물'이 '그래 잘 가거라 내 아들아. 이제부터는 크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단다.'라고 사람처럼 말을 한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의인법에 해당한다.

필수 개념 ② 활유

답 ④

둑방길 | 유재영

작품 해설 이 시는 비 갠 둑방길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양한 비유와 이미지를 활용하여 나타내고 있는 현대 시조이다. 화자는 비 갠 후의 맑고 깨끗한 둑방길을 걸어가면서 시선의 이동에 따라 어린 염소, 꽃대궁, 물총새, 피라미, 조팝꽃 등을 보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 평화롭고 고요한 둑방길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3·4조의 음수율과 4음보의 음보율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다.

주제 비 갠 둑방길의 아름다운 풍경

작품 꼼꼼 강의

1연 어린 염소 / 등 가려운
여우비도 / 지났다.
▶ 어린 염소의 등에 여우비가 내림.

2연 목이 긴 / 메아리가
자맥질을 / 하는 곳
▶ 둑방길에서 물 흐르는 소리(메아리)가 길게 들려옴.

3연 마알간 / 꽃대궁들이
물빛으로 / 흔들리고.
▶ 꽃대궁이 흔들림.

4연 부리 긴 / 물총새가
느낌표로 / 물고 가는
▶ 물총새가 피라미를 물고 감.

5연 피라미 / 은빛 비린내
문득 번진 / 둑방길
▶ 조팝꽃이 한창 피어 있음.

6연 어머니 / 마른 손 같은
조팝꽃이 / 한창이다.

무생물인 '메아리'가 생물처럼 '자맥질'을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즉 무생물이 아닌 생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오답 챙기기

①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인 원관념은 '메아리'이다.

② '목'은 '척추동물의 머리와 몸통을 잇는 잘록한 부분'을 가리키므로 목이 길다는 것은 생물의 모습에 해당한다.

③ '자맥질'은 물속에 들어가서 떴다 잠겼다 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물의 행동에 해당한다.

⑤ 원관념인 '메아리'는 무생물, 보조 관념인 '목이 긴, 자맥질을 하는'은 생물의 행동이다.

본문 022쪽

02 실전 입자 비유: 의인 / 활유

01 ① 02 ⑤ 03 훨훨훨 깃을 치는 청산

개념 적용하기 의인, 보조, 활유, 원

작품 한눈에 해, 의인, 청산, 평화

01 ~ 04

해 | 박두진

작품 해설 이 시는 밝음과 어둠의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어둠의 세계는 가고 밝고 평화로운 세계가 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1연에서 '해야 솟아라'를 반복하며 밝은 세상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2연에서는 '달밤'으로 상징되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3연의 '청산'은 화자가 바라는 이상 세계이며, 4, 5연에서 화자는 '사슴, 칡범'과 함께하는, 즉 모든 생명체가 화합하여 함께 살아갈 날을 꿈꾼다. 그리하여 6연에서는 '앳되고 고운 날', 즉 화합과 공존, 평화의 시대를 누리기를 염원하고 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 '해'는 조국의 광복, 화합을 상징하는 소재이며, '달밤'은 일제 강점기, 광복 직후의 암울한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 화합과 평화의 세계에 대한 소망

작품 꼼꼼 강의

1연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 광명의 세계에 대한 소망

2연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 어두운 세계에 대한 거부

3연 해야, 고운 해야. 네가 오면, 네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훨훨훨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 새로운 세계(이상향)에 대한 소망

4연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5연 칡범을 따라 칡범을 따라, 칡범을 만나면 칡범과 놀고…….
▶ 화합과 공존의 삶의 모습

6연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워어이 워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앳되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 화합과 공존의 세계에 대한 소망

01 시어의 의미 파악 답 ①

이 시에서 '해'는 '밝음, 광명'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반면 '달밤'은 '해'와 반대로 '절망적인 현실'을 나타낸다. 따라서 '달밤'은 ⓐ, '해'는 ⓑ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청기기

② '눈물, 골짜기'는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현실을 나타내므로 ⓐ에 해당한다.

③ '청산, 양지'는 이상적인 세상, 밝은 세상을 의미하므로 ⓑ에 해당한다.

④ '사슴'은 약자, '칡범'은 강자를 의미한다. 화자는 약자도 강자도 모두 화합하는 평화의 세계를 꿈꾸고 있다.

⑤ '꽃, 새'는 자연물로, 화자는 이처럼 다양한 존재들이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평화의 세계를 꿈꾸고 있다.

02 비유적 표현 이해 비유: 의인 / 활유 답 ⑤

㉠~㉢에는 사람이 아닌 '해'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⑤의 '풀이 눕는다', '(풀이)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에도 사람이 아닌 '풀'을 사람처럼 눕고, 울고, 일어난다고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청기기

① '내 마음은 촛불이요.'에는 '내 마음'(원관념)을 '촛불'(보조 관념)에 빗댄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② '쿵 쿵 쿵 / 가슴이 북이다'에는 큰북이나 장구 따위가 잇따라 울리는 매우 깊은 소리를 나타내는 '쿵쿵쿵'이라는 의성어와 '가슴'(원관념)을 '북'(보조 관념)에 빗댄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③ '교실은 온통 별밭이다. / 초롱초롱 반짝이는 너희들의 눈'에는 '교실'(원관념)을 '별밭'(보조 관념)에 빗댄 은유법과 정기가 있고 맑은 눈의 모양을 나타내는 '초롱초롱'이라는 의태어가 사용되었다.

④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에는 '처럼'이라는 연결어를 통해 직접 비유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03 비유적 표현 이해 비유: 의인 / 활유 답 훨훨훨 깃을 치는 청산

'훨훨훨 깃을 치는 청산'에는 무생물인 '산'을 생물인 새가 '깃을 치는(날개를 치고 훨훨 날아오르는)' 것처럼 표현한 활유법이 사용되었다.

본문 025쪽

어휘 확인

1 화합 2 실감 3 양지 4 광명 5 공존

본문 026쪽

03 일차 원형적·관습적·개인적 상징

필수 개념

상징 찾기 1. 낙락장송 2. ×

필수 개념 ❶ 낙락장송

개념 적용하기 낙락장송

상징 찾기 1. 푸른 바다, 고래 2. ×

필수 개념 ❷ ②

개념 적용하기 고래, 청년, 꿈

필수 개념 ❶ 원형적·관습적 상징

답 낙락장송

이 몸이 죽어 가서 | 성삼문

작품 해설 이 시조는 조선 시대 때 작가가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는 상황에 저항하여 임금(단종)을 위해 끝까지 굳은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구체적 사물인 '낙락장송(소나무)'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주제 임금(단종)을 향한 굳은 절개와 충성심

작품 꼼꼼 강의

초장 이 몸이 죽어 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 죽음 이후 자신의 모습에 대한 질문(자문)

중장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이 되어서
임금을 향한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는 상징적 소재
▶ 낙락장송(소나무)이 되고자 함.(자답)

종장 백설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 독야청청하리라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수양대군 일파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
▶ 어떤 고난에도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다짐

화자는 죽어서 무엇이 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이 되어 흰 눈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홀로 푸르러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때 '낙락장송(소나무)'은 임금을 향한 화자의 절개와 충성심(추상적 개념)을 상징하는 구체적 사물이다. 소나무, 매난국죽(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등은 변치 않는 지조나 절개,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상징물들로, 관습적 상징의 대표적인 예이다.

필수 개념 ❷ 개인적 상징

답 ②

고래를 위하여 | 정호승

작품 해설 청년들이 꿈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한 시로, 쉬우면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작품이다. 시인은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 푸른 바다가 아니지'라고 말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푸르른 시절을 지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꿈과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주제 청년들에게 꿈을 지니고 살아갈 것을 당부함.

작품 꼼꼼 강의

상징적 표현 꿈과 희망,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

1연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고래가 사는 곳, 꿈을 키우고 목표를 세워야 하는 청년기의 삶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의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 푸른 바다와 고래와 청년을 이야기함.
~면 ~아니지'라는 표현 반복 → 운율 형성
청년이 꿈과 희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2연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꿈과 이상을 추구하는 고래를 위해 푸르색을 띠는 바다
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 푸른 바다와 고래와 사랑을 이야기함.

3연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 올라

별을 바라본다
청년이 추구하는 꿈과 희망, 목표, 이상 등을 상징함
나도 가끔 내 마음속의 고래를 위하여

밤하늘 별들을 바라본다 ▶ 내 마음속의 고래와 별을 이야기함.
꿈과 희망을 추구하는 모습

이 시는 청년들이 꿈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청년이 청년다우려면 마음속에 희망과 꿈을 지닌 존재인 '고래'를 키워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3연에서 '고래'가 '별'을 바라본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별'은 '꿈, 이상' 등을 상징하는 소재이므로, '고래'는 꿈, 희망, 이상 등을 품고 있는 존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챙기기

① 이 시에서 '푸른 바다'는 '고래'가 사는 곳으로, 꿈을 키우고 목표를 세워야 하는 청년기의 삶을 상징한다.

본문 028쪽

03 원형적·관습적·개인적 상징

입자

01 ② 02 ② 03 ③ 04 빛깔, 향기

개념 적용하기 몸짓, 이름

작품 한눈에 이름, 눈짓, 몸짓, 꽃, 향기, 존재

01 ~ 04

꽃 | 김춘수

작품 해설 이 시는 '꽃'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인 '나'는 존재의 참된 모습을 인식함으로써 의미 있는 진정한 관계를 맺고자 한다. 1연에서 '그'는 '나'에게 무의미한 존재인 '하나의 몸짓'이었지만, '나'가 '그'의 참된 모습을 인식하는 과정인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 2연에서는 의미 있는 존재인 '꽃'으로 변모한다. 3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누군가가 자신의 본질에 맞는 이름을 불러 주어 자신도 그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4연에서 화자는 '그'와 '나'의 관계를 '우리'로 확장하면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눈짓)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보편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다. 존재의 본질과 인식, 존재들 간의 진정한 관계, 사물과 언어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으며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주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함.

작품 꼼꼼 강의

1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인식(앎)의 주체 '나'가 '그'를 인식하기 전)
그는 다만
(원관념) 상징적 시어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의미 없는 존재)
▶ 이름을 부르기 이전 '그'는 무의미한 존재였음.

2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내가 '그'를 인식하였을 때'= 존재의 인식)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됨.
(의미 있는 존재, '몸짓'과 대조됨.)

3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존재의 본질)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가 인식해 주기를 바람.)
그에게로 가서 나도
('-고 싶다'의 반복으로 운율 형성, 화자의 소망 강조.)
그의 꽃이 되고 싶다. ▶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나'의 소망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

4연 우리들은 모두
('나'와 '그'만이 '우리'의 소망으로 확대되고 있음.)
무엇이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
▶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우리'의 소망

01 작품의 내용 이해/시어의 의미 파악 원형적·관습적·개인적 상징 답 ②

〈보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2연에서 '나'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그'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1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에서 '하나의 몸짓'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그'를 인식하기 전)의 '의미 없는 존재'를 상징하고, 2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에서 '꽃'은 '그'의 이름을 부른 후('그'를 인식한 후)의 '의미 있는 존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챙기기

③ 4연의 '하나의 눈짓'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를 상징한다.
④ 3연의 '빛깔과 향기'는 존재가 가지는 고유한 본질을 상징한다.

02 작품의 종합적 감상 답 ②

이 시의 중심 소재인 '꽃'은 시인에 의해 '의미 있는 존재'라는 독창적 의미가 부여된 개인적 상징물에 해당한다. 화자인 '나'가 실제로 피어 있는 꽃을 보면서 감탄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 챙기기

① 중심 소재인 '꽃'을 비롯하여 작품 전체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③, ⑤ 3, 4연에서 '되고 싶다'를 반복하여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④ 1~3연의 '나'와 '그'의 관계가 4연의 '우리'로 확장되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03 시어의 의미 파악 원형적·관습적·개인적 상징 답 ③

이 시에서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몸짓'에 불과한 의미 없는 존재였지만, 이름을 불러 준 후에는 고유의 '빛깔과 향기'를 지닌 '꽃', 즉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내용에서 이를 알 수 있다.

04 시어의 의미 파악 원형적·관습적·개인적 상징 답 빛깔, 향기

3연에서 화자는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 주기를 소망하고 있다. 즉 '나'만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본질인 '빛깔과 향기'에 맞게 이름이 불림으로써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다.

본문 031쪽

어휘 확인

1 절개 2 관습 3 인식 4 맥락 5 본질

본문 032쪽

04 일차 외형률·내재율 / 음수율·음보율

외형률·내재율 판단하기 1. ○ 2. ×

필수 개념 ① 가: 외형률, 나: 내재율

개념 적용하기 정형, 자유

음수율·음보율 파악하기 1. 형님 온다∨형님 온다∨분고개로∨형님 온다. / 형님 마중∨누가 갈까∨형님 동생∨내가 가지. 2. 4

필수 개념 ② ⑤

개념 적용하기 음수, 4

필수 개념 ① 외형률·내재율

답 가: 외형률, 나: 내재율

가 하여가 | 이방원

작품 해설 고려 말에 이방원이 지은 시조로, 조선을 건국하기 위해 고려의 충신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고 회유하기 위하여 지은 작품이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선 건국에 동참하여 영화를 누리자고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뜻을 담고 있다. 이에 정몽주는 고려에 충성을 다짐하는 〈단심가〉로 화답한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주제 조선 건국에 동참할 것을 권유함.

작품 꼼꼼 강의

초장 이런들∨어떠하며∨저런들∨어떠하리. (3·4/4·4 글자 수 반복, ∨: 4음보 반복)
▶ 시대의 흐름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삶을 권함.

중장 만수산∨드렁칡이∨얽어진들∨어떠하리
칡덩굴들이 얽혀 있듯 자신들과 함께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
▶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선 건국에 동참할 것을 권함.

종장 우리도∨이같이 얽어져∨백 년까지∨누리리라.
고음절 고정
▶ 조선 건국에 동참하면 영화를 누릴 수 있음.

나 신문지 밥상 | 정일근

작품 해설 신문지를 깔고 밥을 먹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시인은 신문지를 밥상으로 여기면 밥상이 된다는 어머니의 말씀으로부터 삶의 교훈을 이끌어 내어 전하고 있다.

주제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

작품 꼼꼼 강의

더러 신문지 깔고 밥 먹을 때가 있는데요
이따금, 드물게
어머니, 우리 어머니 꼭 밥상 펴라 말씀하시는데요
'-는데요'의 반복으로 운율 형성
시어의 반복으로 운율 형성 신문지를 가리킴
저는 신문지가 무슨 밥상이냐며 궁시렁궁시렁하는데요
'궁시렁'의 반복으로 운율 형성
▶ 신문지를 밥상이라 말하는 어머니와 이에 투덜대는 '나'

〈보기〉로 보아 글자 수와 음보, 구성 등 일정한 형식과 규칙에 따라 지어진 가는 시조로 정형시에 해당하며, 운율이 겉으로 드러난다. 즉 외형률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정해진 형식이나 운율이 없는 나는 자유시로, 작품 속에서 운율이 은근히 드러나는 내재율을 지니고 있다.

필수 개념 ② 음수율·음보율

답 ⑤

시집살이 노래 | 작자 미상

작품 해설 이 노래는 여성들이 부르던 민요로 서민 여성들이 겪는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고통이 구구절절하게 배어 있다. 사촌 자매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된 이 노래에는 대구, 반복과 열거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또 4·4조의 음수율과 4음보의 율격을 갖추고 있어 매우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운율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민요이다. 평범한 일상어를 사용하면서도 언어 표현의 묘미를 잘 살렸으며, 시집살이의 한(恨)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주제 고된 시집살이의 애환

작품 꼼꼼 강의

형님 온다∨형님 온다∨분고개로∨형님 온다. (4글자 수 반복, ∨: 4음보 반복)
4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
형님 마중∨누가 갈까∨형님 동생∨내가 가지.

형님 형님∨사촌 형님∨시집살이∨어떱데까?
사촌 동생의 질문
▶ 1~3행: 친정에 온 사촌 언니에게 시집살이를 물어봄.(화자: 사촌 동생)

이애 이애∨그 말 마라∨시집살이∨개집살이.
시집살이의 고통과 어려움을 단적으로 표현함.
앞밭에는∨당추 심고∨뒷밭에는∨고추 심어,
대구법
고추 당추∨맵다 해도∨시집살이∨더 맵더라.
시집살이의 고통과 힘듦을 비유로 표현함.
둥글둥글∨수박 식기∨밥 담기도∨어렵더라.
'-어라'의 반복으로 운율 형성
도리도리∨도리소반∨수저 놓기∨더 어렵더라.
▶ 4~8행: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집살이(화자: 사촌 언니)

이 노래는 '형님 온다∨형님 온다∨분고개로∨형님 온다. / 형님 마중∨누가 갈까∨형님 동생∨내가 가지.'와 같이 4음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3음보의 율격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3음보와 4음보를 번갈아 사용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체기기

① '형님 온다(4) / 형님 온다(4) / 분고개로(4) / 형님 온다(4).'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적으로 사용(4·4조)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형님 온다'라는 동일 시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③ 4글자가 반복되는 4·4조의 음수율과 '형님 온다∨형님 온다∨분고개로∨형님 온다.'와 같이 4음보로 한 행이 이루어지는 음보율이 뚜렷이 나타나는 노래이다.

④ 이 노래는 4·4조의 음수율과 4음보의 음보율을 갖춘 외형률이 작품 표면에 뚜렷이 나타나 있다.

본문 034쪽

04 일차 (실전) 외형률·내재율 / 음수율·음보율

01 ②　　02 ⑤　　03 ①　　04 진달래꽃

개념 적용하기 음수율, 오리다, 1, 4

작품 한눈에 이별, 운율, 진달래꽃

01 ~ 04

진달래꽃 | 김소월

작품 해설 이 시는 이별의 정한을 7·5조의 음수율, 3음보의 음보율과 애절한 여성적 어조로 노래한 작품으로,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예감하고 있는 여성으로, 떠나는 임에게 꽃을 뿌리며 임의 앞길을 축복하려 한다. 또한 겉으로는 임이 떠나더라도 슬퍼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임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애절한 마음을 반어(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것)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 이별의 슬픔과 정한

작품 꼼꼼 강의

1연
나 보기가∨역겨워∨ (·: 7·5조의 음수율 / ∨: 3음보 반복)
(시적 화자)
가실 때에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가시게 된다면))
말없이∨고이 보내∨드리오리다. ▶ 이별에 대한 체념
(이별을 체념적으로 수용함 / '-오리다'의 반복으로 운율 형성)

2연
영변에∨약산∨
(평안도 영변에 있는 산으로 진달래꽃으로 유명함. 향토성이 나타남.)
진달래꽃
(화자의 분신.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축복을 상징)
아름 따다∨가실 길에∨뿌리오리다. ▶ 떠나는 임에 대한 축복
(꽃을 뿌리며 떠나는 임의 앞길을 축복함)

3연
가시는∨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임에 대한 화자의 희생적 사랑)
사뿐히∨즈려밟고∨가시옵소서. ▶ 임에 대한 자기희생적 사랑
(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의지)

4연
나 보기가∨역겨워∨
가실 때에는
(반복 (1, 4연) ※ 1연과 4연의 형태가 유사함. → 안정감, 통일성, 의미 강조)
죽어도∨아니 눈물∨흘리오리다. ▶ 이별의 슬픔과 정한 극복
(반어법(실제로는 슬프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말함))

01 화자의 정서와 태도 파악 답 ②

이 시에서 화자인 '나'는 임과의 이별을 예감하면서 떠나는 임에게 꽃을 뿌리며 임의 앞길을 축복하려 한다. 그리고 임이 떠나더라도 자신은 슬퍼하지 않고 고이 보내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챙기기

① 2연에서 화자는 떠나는 임에게 꽃을 뿌리며 임의 앞길을 축복하려 한다.

③ 3연에서 화자는 임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④ 1연에서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4연에서 화자는 임이 떠나더라도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며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02 운율의 이해 외형률·내재율 / 음수율·음보율 답 ⑤

3연에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발을 내디디는 모양을 나타내는 '사뿐이'라는 의태어가 있지만 이를 반복하고 있지 않다. 또한 소리를 흉내 낸 말인 의성어는 작품에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챙기기

①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이라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③ '나 보기가∨역겨워∨가실 때에는', '말없이∨고이 보내∨드리오리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3음보와 일정한 글자 수(7·5조의 음수율)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이 시는 종결 어미 '-오리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3 운율의 이해 외형률·내재율 / 음수율·음보율 답 ①

이 시에는 '말없이∨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사뿐이∨즈려밟고∨가시옵소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3음보의 음보율이 나타나 있다. ① 역시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넘어간다.'와 같이 세 마디로 끊어 읽히는 3음보의 음보율이 나타나 있다.

오답 챙기기

② '잠아 잠아∨짙은 잠아∨이내 눈에∨쌓인 잠아'에서 알 수 있듯이 4음보의 율격이 나타나 있다.

③ '태산이∨높다 하되∨하늘 아래∨뫼이로다.'에서 알 수 있듯이 4음보의 율격이 나타나 있다.

④ '비 오자∨장독간에∨봉선화∨반만 벌어'에서 알 수 있듯이 4음보의 율격이 나타나 있다.

⑤ '우리 마을∨고향 마을∨시냇가∨자갈밭엔'에서 알 수 있듯이 4음보의 율격이 나타나 있다.

04 소재의 의미 파악 답 진달래꽃

이 시의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으로서, 이 꽃을 임이 떠나는 길에 뿌리고, 임에게 밟고 가라고 하는 데에서 임에 대한 희생적 사랑과 정성어린 축복의 마음이 드러난다.

본문 037쪽

어휘 확인

1 지천　　2 소반　　3 체념　　4 아름　　5 염치

본문 038쪽

05 일차 필수 개념 반복 / 음성 상징어

반복 찾기 1. ○ 2. 하늘 3. 같이, 싶다

필수 개념 ❶ ①

개념 적용하기 문장 구조, 3

음성 상징어 찾기 1. 사각사각 2. 팔랑팔랑, 폴폴, 살랑살랑

필수 개념 ❷ ②

개념 적용하기 의성, 의태, 운율

필수 개념 ❶ 반복

답 ①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 김영랑

작품 해설 이 시는 맑고 순수한 세계인 '하늘'을 동경하는 화자의 마음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새악시', '살포시', '보드레한' 등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시어가 돋보이는 순수시이다. 이 작품은 매우 단순한 내용과 짜임새로 이루어져 있는데, 4행으로 구성된 두 개의 연은, 모두 1행과 2행이 '-같이'로 되어 있고, 마지막 행은 '-고 싶다'로 되어 있다. 즉,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과 직유법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맑고 맑은 세계(봄 하늘)에 대한 동경과 예찬

작품 꼼꼼 강의

1연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 직유법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 의인법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 봄 하늘을 우러르고 싶은 소망

2연 새악시 볼에 떠오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고 싶은 소망

이 시는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에서 'ㄹ'을 5회 사용한 것처럼 주로 울림소리인 'ㄴ', 'ㄹ', 'ㅁ' 소리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부끄럼'에 'ㅂ' 소리가 나타나긴 하지만 반복되고 있지는 않다.

오답 챙기기

② 이 시에는 '하늘', '같이' 등의 시어가 반복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같은 시어가 반복해서 사용되면 운율감이 형성된다.

③ 1연과 2연에서 '~햇발같이 ~우러르고 싶다', '~부끄럼같이 ~바라보고 싶다'에서 '~같이 ~을 ~고 싶다'라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이 느껴진다.

④ 이 시의 1연과 2연에서는 '-고 싶다'라는 동일한 종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복은 운율을 형성하는 동시에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다.

⑤ 이 시는 '돌담에∨속삭이는∨햇발같이', '풀 아래∨웃음 짓는∨샘물같이'와 같이 3음보의 음보율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필수 개념 ❷ 음성 상징어

답 ②

나는 지금 꽃이다 | 이장근

작품 해설 이 시는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며 느끼는 기분 좋은 감정을 비유적 표현과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밝고 경쾌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화자는 미용실 누나의 은빛 가위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듬는 것이 마치 머리에 은빛 나비가 날아드는 것 같다고 느끼면서 환하게 다듬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한 송이 꽃에 빗대고 있다.

주제 미용실에서 꽃 같은 존재로 피어나는 감정

작품 꼼꼼 강의

1연 팔랑팔랑 — 의태어 → 경쾌하고 밝은 분위기 조성, 대상을 실감 나게 표현함.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 — 직유법
▶ 가위질이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짐.

2연 사각사각 — 의성어
미용실 누나 손에 들린 은빛 가위
▶ 미용실 누나의 가위질 소리

3연 붙었다 떨어졌다
내 머리 주위를 날아다닌다 — 활유법, 가위(무생물)의 움직임을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으로 표현함.
▶ 가위의 움직임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짐.

4연 폴폴 날리는 꽃가루 — 은유법, 머리카락(원관념)을 꽃가루(보조 관념)에 빗댐.
살랑살랑 나는 은빛 나비 — 활유법 / 은빛 가위를 나비에 은유법
▶ 잘린 머리카락이 꽃가루처럼 느껴짐.

5연 나는 / 지금 — 은유법, 머리카락을 다듬는 미용 중인 '나'를 꽃에 빗댐.

6연 꽃이다
▶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낌.

'폴폴'은 눈이나 먼지, 연기 따위가 흩날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이다.

오답 챙기기

① 팔랑팔랑, 사각사각, 폴폴, 살랑살랑 등 다양한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다.

③ '사각사각'은 벼, 보리, 밀 따위를 잇따라 가볍게 벨 때 나는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로, 가위질 소리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④ '살랑살랑'은 가벼운 물체나 물결 따위가 바람에 조금씩 자꾸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모양을 흉내 낸 의태어로,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⑤ '팔랑팔랑'은 나뭇잎이나 나비 따위가 가볍게 계속 날아다니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이다. 1연은 미용실 가위의 움직임을 '나비'에 빗대어 나타내고 있다.

본문 040쪽

05 반복 / 음성 상징어

01 ① 02 ③ 03 ⑤ 04 직유법, 햇비

개념 적용하기 해님, 운율, 알롱알롱, 의태어

작품 한눈에 햇비, 반복, 비유, 의태어, 햇비

01 ~ 04

햇비 | 윤동주

작품 해설 이 시는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등 다양한 비유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밝게 자라는 아이들의 희망찬 모습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적 화자는 어린아이로 동무들과 함께 햇비를 맞고, 무지개를 바라보며 노래하고 춤추고 있다. 이 시가 창작된 일제 강점기는 우리 민족이 주권을 잃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시기로, 시인은 아이들의 밝은 모습에서 희망을 찾고, 미래는 현재와 다른 밝은 세상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희망적인 시를 썼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주제 햇비를 맞으며 밝게 자라는 아이들의 희망찬 모습

작품 꼼꼼 강의

1연 아씨처럼 나린다 : 직유법
잠깐 내렸다가 곧 사라지는 햇비의 모습을 '아씨'에 빗댐.
보슬보슬 햇비 : 의태어, 대상을 구체적이고 실감 나게 표현함.
의태어를 사용하여 비의 모습을 나타냄.
맞아 주자 다 같이 : '-자'의 반복으로 운율 형성
주의적 표현 / 햇비를 온몸으로 맞겠다는 의미 / 햇비를 반갑게 맞이해 주자는 의미
옥수숫대처럼 크게
: 비를 맞으며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의 모습을 옥수숫대에 빗댐.
닷 자 엿 자 자라게
해님이 웃는다
: 아이들 / 아이들의 희망찬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는 마음을 표현함.
나 보고 웃는다. ▶ 햇비를 맞는 아이들
시적 화자 / 비를 맞으며 즐거워하는 아이

2연 하늘 다리 놓였다
: 은유법, 무지개를 '하늘 다리'로 비유하여, 무지개가 놓은 곳에 있음을 암시
알롱알롱 무지개
: 의태어를 사용하여 무지개를 선명하게 표현함.
노래하자 즐겁게
동무들아 이리 오나
다 같이 춤을 추자
해님이 웃는다
즐거워 웃는다. ▶ 무지개 아래서 노래하고 춤추는 아이들

01 운율의 이해 반복 / 음성 상징어 답 ①

이 시는 자유시로, 정해진 형식과 운율에 맞춰 쓴 정형시가 아니다.

오답 챙기기

② 1연과 2연에서 동일한 시어인 '해님', '웃는다'를 반복 사용하여 시에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③ '-ㄴ(는)다', '-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통일감을 주고 있다.

④ 1연의 '해님이 웃는다 / 나 보고 웃는다', 2연의 '해님이 웃는다 / 즐거워 웃는다'에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시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⑤ '보슬보슬'은 눈이나 비가 가늘고 성기게 조용히 내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로, 시적 상황을 생동감 있고 구체적으로 나타내며 운율감도 형성하고 있다.

02 시의 분위기 파악 답 ③

이 시는 햇비(여우비)가 오는 날, 비를 맞으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한'이라는 의미의 '경건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챙기기

①, ②, ④, ⑤ '해님이 웃는다', '노래하자 즐겁게', '다 같이 춤을 추자' 등에서 밝고 즐거우며 경쾌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희망찬 분위기가 느껴진다.

03 운율의 이해 반복 / 음성 상징어 답 ⑤

㉠ '알롱알롱'은 여러 가지 빛깔의 작고 또렷한 점이나 줄 따위가 고르고 촘촘하게 무늬를 이룬 모양을 흉내 낸 의태어이다. ⑤의 '포슬포슬', '솔솔솔' 역시 비가 내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이다.

오답 챙기기

① '쿵 쿵 쿵'은 큰북을 칠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이다.

② '까악까악'은 까마귀나 까치 따위가 우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이다.

③ '뻐꾹뻐꾹'은 뻐꾸기가 잇따라 우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이다.

④ '귀뚤귀뚤'은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이다.

04 비유적 표현의 이해 답 직유법, 햇비

ⓐ '아씨처럼 나린다'는 원관념인 '햇비'를 '처럼'을 사용하여 보조 관념인 '아씨'에 직접 빗댄 직유법이다.

본문 043쪽

어휘 확인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본문 044쪽

06 필수개념 입체 시각적·청각적·후각적·미각적·촉각적 심상

시각적·청각적 심상 찾기 1. 시각 2. 까르르 웃는 너희들의 웃음

필수 개념 ① ⑤

개념 적용하기 청각

후각적·미각적·촉각적 심상 찾기 1. 미각 2. ×

필수 개념 ② ⑤

개념 적용하기 후각, 미각

필수 개념 ① 시각적·청각적 심상

답 ⑤

별처럼 꽃처럼 | 오세영

작품 해설 이 시는 화자인 어느 선생님의 눈으로 바라본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교실 풍경과 희망에 찬 열정적인 아이들의 모습을 비유와 음성 상징어를 통해 표현한 작품이다. 이 시에서는 교실을 '별밭', '장미밭' 등에 빗대고 있고, 교실에 있는 아이들을 '별', '장미' 등에 비유하고 있다.

주제 어느 선생님의 눈으로 바라본 교실의 풍경과 아이들의 밝은 모습

작품 꼼꼼 강의

1연 교실은 온통 별밭이다.
초롱초롱 반짝이는 너희들의 눈
별 하나의 꿈,
별 하나의 희망,
별 하나의 이상. ▶ 꿈, 희망, 이상을 가진 학생들이 가득한 교실

2연 교실은 흐드러진 장미밭이다.
까르르 웃는 너희들의 웃음
장미 한 송이의 사랑,
장미 한 송이의 열정,
장미 한 송이의 순결, ▶ 사랑, 열정, 순결을 가진 학생들이 가득한 교실

청각적 심상은 소리, 음성 등을 귀로 듣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를 말한다. '별 하나의 꿈', '장미 한 송이의 사랑'에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정기기

① '흐드러진 장미밭'에는 장미꽃들이 탐스럽고 무성하게 피어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시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② '초롱초롱'은 '눈이 정기가 있고 맑은 모양', '까르르'는 '한꺼번에 자지러지게 웃는 소리'를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이다. 이를 통해 시각적, 청각적 심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까르르 웃는 너희들의 웃음'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청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④ '초롱초롱 반짝이는 너희들의 눈'에서는 아이들의 두 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시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필수 개념 ② 후각적·미각적·촉각적 심상

답 ⑤

가 빨래꽃 | 유안진

작품 해설 이 시는 텅 빈 농촌 마을을 지나다 빨래가 널려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의 온기를 느끼며 반가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도시화로 인해 황폐해지는 농촌 현실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작품이다.

주제 시골 마을에 널려 있는 빨래를 보고 느끼는 반가움

작품 꼼꼼 강의

빨랫줄에 줄 타던 옷가지들이 담 너머로 윙크했습니다
초겨울 다저녁때에도 초봄처럼 따뜻했습니다
꽃보다 꽃다운 빨래꽃이었습니다
꽃보다 향기로운 사람 냄새가 풍겼습니다
어디선가 금방 개 짖는 소리도 들린 듯했습니다
▶ 널려 있는 빨래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생기

나 백화 | 백석

작품 해설 이 시는 산골 마을에서 자연과 어우러져 순수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다양한 심상을 사용하고 '자작나무다'라는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자연과 하나된 삶을 그려 내고 있다.

주제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소박한 삶

작품 꼼꼼 강의

그리고 감로같이 단 샘이 솟는 박우물도 자작나무다.
산 너머는 평안도 땅이 보인다는 이 산골은 온통 자작나무다.
▶ 온통 자작나무인 산골

'감로같이 단 샘'에는 혀로 느끼는 맛(달다)을 떠올리게 하는 미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오답 정기기

① '따뜻했습니다'에는 피부로 느껴지는 온도과 관련된 촉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② 빨랫줄에 널린 빨래를 '빨래꽃'으로 나타내어 모양을 떠올리게 하는 시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③ '향기, 냄새'에서 코로 느껴지는 감각과 관련된 후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④ 개가 짖는 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본문 046쪽

실전

06일차 시각적·청각적·후각적·미각적·촉각적 심상

01 ③ 02 ④ 03 ③ 04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개념 적용하기 시각, 청각

작품 한눈에 고향, 이미지, 운율, 구름, 미각적

01 ~ 04

고향 | 정지용

작품 해설 이 시는 변함없는 고향의 자연과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마음속의 고향을 대비하여 고향을 상실한 슬픔을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시각적, 청각적, 미각적, 촉각적 심상)를 사용하여 노래한 작품이다. 이 시의 화자는 멀리 타향에 있다가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으나 고향을 낯설게 느끼고 있으며, 떠도는 구름처럼 정신적으로 방황하면서 어린 시절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쓸쓸함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돌아온 고향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슬픔

작품 꼼꼼 강의

1연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림.

2연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 변함없는 고향의 자연

3연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 낯설게 느껴지는 고향

4연 오늘도 뫼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 변함없이 화자를 반겨 주는 고향의 자연

5연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 쓰다
▶ 어린 시절의 추억을 찾을 수 없는 고향

6연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 높푸른 하늘만이 변함없는 고향

01 화자의 정서와 태도 파악 답 ③

5연에서 화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고향에 대해 쓸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어린 시절의 추억이 살아 있는 고향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청기기

① 1연의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3연의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에서 화자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고향을 낯설게 느끼고 있다.

② 2연의 '산꿩이 알을 품고 /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6연의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에서 화자는 고향의 자연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④ 3연의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5연의 '쓰디쓰다'로 보아 화자는 더 이상 고향에서 안정감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며 씁쓸해하고 있다.

⑤ 3연의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에서 화자는 고향에 돌아온 기분을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신의 마음을 떠도는 구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02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④

이 시에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 모양, 움직임을 흉내 낸 음성상징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청기기

① 1연과 6연에서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라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3연의 '머언'은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문법적으로 맞는 원래 표기는 '먼')인 시적 허용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4연의 '흰 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나타내는 의인법이 쓰인 표현으로 대상(꽃)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1연의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와 6연의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고향 상실의 안타까움이라는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03 심상의 이해 시각적·청각적·후각적·미각적·촉각적 심상 답 ③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는 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의 '풀피리 소리' 역시 청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오답 청기기

㉠, ㉡은 시각적 심상, ㉣은 촉각적 심상, ㉤은 미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04 심상의 이해 시각적·청각적·후각적·미각적·촉각적 심상

답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5연의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에서 화자는 마음속의 고향을 잃어버린 슬픔과 안타까움을 '쓰디쓰다'라는 미각적 심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어휘 확인

본문 049쪽

1 오감 2 상실감 3 제철 4 타향 5 순결

본문 050쪽

07 필수 개념 공감각적 심상 / 복합 감각적 심상

일차

공감각적 심상 찾기 1. 푸른 노래, 푸른 울음 2. ○

필수 개념 ❶ ②

개념 적용하기 전이

복합 감각적 심상 찾기 1.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 2. ×

필수 개념 ❷ ④

개념 적용하기 미각, 촉각

필수 개념 ❶ 공감각적 심상

답 ②

파랑새 | 한하운

작품 해설 이 시는 '파랑새'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자유로운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노래한 작품이다. 전통적인 민요의 3음보 율격을 바탕으로 1연과 4연, 2연과 3연이 반복되는 구조로 이루어진 이 시는, 1연에서는 '파랑새'를 등장시켜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2연과 3연에서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구체화한 뒤, 4연에서는 다시 1연의 내용을 반복하는 방식을 통해 시적 화자의 소망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

작품 꼼꼼 강의

1연 나는 / 나는 / 죽어서
(간절하고 절실한 소망)
파랑새 되어 ▶ 자유로운 존재(파랑새)가 되고 싶은 소망
(자유로운 존재를 상징함)

2연 푸른 하늘
(화자가 소망하는 자유로운 세계)
푸른 들
날아다니며 ▶ 자유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
(화자가 소망하는 자유로운 삶)

(공감각적 심상: '노래, 울음'이라는 청각적 심상이 '푸른'이라는 시각적 심상으로 옮겨 감(청각의 시각화))

3연 푸른 노래
(자유를 만끽하는 노래)
푸른 울음
울어 예으리 ▶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소망
(울며 지내리)

4연 나는 / 나는 / 죽어서
(1연의 내용을 반복하여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강조함)
파랑새 되리 ▶ 자유로운 존재(파랑새)가 되고 싶은 소망

㉠과 ㉡에서는 '노래'와 '울음'이라는 청각적 심상이 '푸른'이라는 시각적 심상으로 옮겨 가는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즉 '시각의 청각화'가 아니라 '청각의 시각화'에 해당한다.

오답 체기기

①, ④, ⑤ ㉠, ㉡에는 '노래, 울음'이라는 청각적 심상이 '푸른'이라는 시각적 심상으로 옮겨 간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③ ㉠, ㉡에는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의 두 감각이 어우러져 나타나 있다.

필수 개념 ❷ 복합 감각적 심상

답 ④

빵집 | 이면우

작품 해설 이 시는 장사가 잘되어 빵집을 운영하는 부모님이 기뻐하기를 바라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대한 감동을 노래하고 있다. 언뜻 지나치기 쉬운 일상적 경험에서 포착한 감동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 내고 있다.

주제 부모님을 위하는 빵집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대한 감동

작품 꼼꼼 강의

빵집은 쉽게 빵과 집으로 나뉠 수 있다
큰길가 유리창에 두 뼘 도화지 붙고 거기 초록 크레파스로
아저씨 아줌마 형 누나님
(빵집 아이가 도화지에 써서 유리창에 붙인 글의 내용)
우리 집 빵 사 가세요
아빠 엄마 웃게요, 라고 쓰여진 걸
(빵이 잘 팔려서 부모님이 기뻐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동심)
붉은 신호등에 멈춰 선 버스 속에서 읽었다 그래서
(시적 상황 – 버스에서 빵집 유리창에 붙은 글을 보게 됨)
그 빵집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과
(복합 감각적 심상(미각+촉각))
집 걱정하는 아이가 함께 있는 걸 알았다
▶ 부모님을 위하는 빵집 아이의 마음

㉠에는 혀로 맛보는 감각과 관련된 미각적 심상(달콤하고)과 피부로 느껴지는 감각과 관련된 촉각적 심상(부드러운)이 나란히 나열된 복합 감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오답 체기기

① ㉠에는 두 개의 감각이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뿐,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 가는 감각의 전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에는 공감각적 심상이 아닌 복합 감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③ ㉠에는 미각과 촉각이라는 두 가지 감각이 나타나 있다.

⑤ ㉠에는 귀로 소리를 듣는 듯한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본문 052쪽

07 실전 일치 공감각적 심상 / 복합 감각적 심상

01 ⑤ 02 ① 03 ⑤ 04 ④

개념 적용하기 공, 청각, 후각, 복합

작품 한눈에 연두, 초록, 연두, 애벌레, 청소년

01 ~ 04

아직은 연두 | 박성우

작품 해설 이 시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비유, 반복을 통해 '연두'의 속성과 가치를 노래한 작품이다. 이 시에서 '연두'는 초록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색채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성숙의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성숙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시인은 청소년기를 '연두'라는 색채 이미지로 표현하여 이를 '초록'과 대비함으로써 대상(청소년)의 무한한 가능성과 그들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이고 애정 어린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주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연두(청소년)

작품 꼼꼼 강의

난 연두가 좋아 초록이 아닌 연두

우물물에 설렁설렁 씻어 아삭 씹는
풋풋한 오이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옷깃에 쓱쓱 닦아 아사삭 깨물어 먹는
시큼한 풋사과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한 연두
풋자두와 풋살구의 시큼시큼 풋풋한 연두,
난 연두가 좋아 아직은 풋내가 나는 연두

▶ 1~7행: 풋풋함을 지닌 연두

연초록 그늘을 좍좍 펴는 버드나무의 연두
기지개를 쭉쭉 켜는 느티나무의 연두
난 연두가 좋아 초록이 아닌 연두

누가 뭐래도 푸릇푸릇 초록으로 가는 연두
빈집 감나무의 떫은 연두
강변 미루나무의 시시껄렁한 연두

▶ 8~13행: 성숙의 과정에 있는 연두

난 연두가 좋아 늘 내 곁에 두고 싶은 연두,
연두색 형광펜 연두색 가방 연두색 팬티
연두색 티셔츠 연두색 커튼 연두색 베갯잇
난 연두가 좋아 연두색 타월로 박박 밀면
내 막막한 꿈도 연둣빛이 될 것 같은 연두
시시콜콜, 마냥 즐거워하는 철부지 같은 연두
몸 안에 날개가 들어 있다는 것도 까마득 모른 채
배춧잎을 신나게 갉아 먹는 연두 애벌레 같은, 연두
아직 많은 것이 지나간 어른이 아니어서 좋은 연두
난 연두가 좋아 아직은 초록이 아닌 연두

▶ 14~23행: 미래의 가능성을 지닌 연두

01 중심 소재의 의미 파악 ⑤

'시시콜콜, 마냥 즐거워하는 철부지 같은 연두', '배춧잎을 신나게 갉아 먹는 연두 애벌레 같은, 연두' 등에서 '연두'는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현재를 즐겁게 사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지,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지 않다.

오답 체기기

① '시시콜콜, 마냥 즐거워하는 철부지 같은 연두'에서 '연두'는 조그마한 일에도 즐거워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② '풋풋한 오이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시큼한 풋사과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한 연두', '시큼시큼 풋풋한 연두' 등에서 '연두'는 풋풋하고 싱그러운 성질을 지닌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③ '몸 안에 날개가 들어 있다는 것', '아직 많은 것이 지나간 어른이 아니어서 좋은 연두'에서 '연두'는 미완성이지만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④ '난 연두가 좋아 늘 내 곁에 두고 싶은 연두'에서 '연두'는 화자인 '나'가 늘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긍정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02 작품의 종합적 감상 ①

이 시는 '오이', '풋사과', '풋자두', '버드나무', '미루나무', '애벌레' 등 '연두'를 연상하게 하는 다양한 사물들을 나열하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른 전개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체기기

② 이 시는 '연두'와 '초록'이라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 '연두'가 지닌 가능성과 가치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③ '난 연두가 좋아'라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④ '초록, 연두' 등의 시각적 심상, '아삭, 아사삭' 등의 청각적 심상, '풋풋한 오이 냄새' 등의 후각적 심상을 통해 대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⑤ '철부지 같은 연두'(직유법), '기지개를 쭉쭉 켜는 느티나무'(의인법) 등 다양한 비유를 통해 대상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03 시어의 의미 파악 ⑤

이 시는 '연두'와 '초록'이라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 '연두'가 지닌 속성과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연두'는 초록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색채로서, 아직 성숙의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성숙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풋풋한 청소년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 '초록'은 '연두'와 달리 무르익은 색으로, 성숙의 경지에 도달한 존재를 상징한다. 이로 볼 때 '많은 것이 지나간 어른'은 청소년과 대비되는 대상으로 '초록'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시어로 볼 수 있다.

오답 체기기

①, ② 풋풋한 '오이', 시큼한 '풋사과'는 '연두'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 여물지 않은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③ '철부지'는 '연두'를 빗댄 대상이다.
④ '애벌레'는 '연두'를 빗댄 대상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를 의미한다.

04 심상의 이해 공감각적 심상 / 복합 감각적 심상

답 ④

㉡에는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④는 술이 익고(→ 후각) 노을이 탄다(→ 시각) 하여 후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이 나란히 나열된 것이므로 복합 감각적 심상이다.

오답 찾기기

① 맛(→ 미각)이 빨갛고 파랗다(→ 시각)고 하여 미각의 시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감각적 심상이다.
② 어둠(→ 시각)이 피부의 바깥에 스민다고(→ 촉각) 하여 시각의 촉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감각적 심상이다.
③ 풍금 소리(→ 청각)가 켜켜이 쌓인다(→ 시각)고 하여 청각의 시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감각적 심상이다.
⑤ 울음(→ 청각)이 꽃처럼 붉다(→ 시각)고 하여 청각의 시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감각적 심상이다.

본문 055쪽

어휘 확인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본문 056쪽

08 일차 필수 개념 시적 화자 / 시적 대상 / 시적 상황

시적 화자 찾기 1. ○ 2. ×

필수 개념 ❶ ⑤

개념 적용하기 딱지

시적 대상 / 시적 상황 찾기 1. 묏버들 2. 임과 떨어져(헤어져) 있음.

필수 개념 ❷ ②

개념 적용하기 묏버들

필수 개념 ❶ 시적 화자

답 ⑤

딱지 | 이준관

작품 해설 이 시는 시적 화자인 현재의 '나'가 어린 시절의 경험을 회상하며 딱지를 떼어 내지 말라던 아버지의 말씀에서 삶에 대한 깨달음과 교훈을 이끌어 내어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는 딱지가 생기고 떨어지면서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을,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해 가는 인생의 과정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주제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해 가는 인생의 과정

작품 꼼꼼 강의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칠칠치 못한 나는 걸핏하면 넘어져
무릎에 딱지를 달고 다녔다.
▶ 1~3행: 어린 시절 자주 넘어져 딱지를 달고 다닌 '나'
그 흉물 같은 딱지가 보기 싫어
손톱으로 득득 긁어 떼어 내려고 하면
아버지는 그때마다 말씀하셨다.
딱지를 떼어 내지 말아라 그래야 낫는다.
▶ 4~7행: 딱지를 떼지 말아야 상처가 낫는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놓아두면
까만 고약 같은 딱지가 떨어지고
딱정벌레 날개처럼 하얀 새살이 / 돋아나 있었다
▶ 8~11행: 딱지를 그대로 놓아두면 새살이 돋아남.
지금도 칠칠치 못한 나는
사람에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며
마음에 딱지를 달고 다닌다.
그때마다 그 딱지에 아버지 말씀이 / 얹혀진다
딱지를 떼지 말아라 딱지가 새살을 키운다.
▶ 12~17행: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깨달음을 얻은 현재의 '나'

15~17행으로 보아 어린 시절 흉물 같은 딱지가 보기 싫어 떼려고만 했던 화자는 어른이 된 지금, '딱지'로 상징되는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극복해야만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다.

오답 찾기기

① 1행의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에서 알 수 있듯이 시적 화자인 '나'가 시 속에 직접 드러나 있다.

② 4~5행의 '그 흉물 같은 딱지가 보기 싫어 ~ 긁어 떼어 내려고 하면'에서 알 수 있다.

③ 15~17행의 '그때마다 그 딱지에 아버지 말씀이 / 얹혀진다. / 딱지를 떼지 말아라 딱지가 새살을 키운다.'에서 현재의 '나'는 '딱지'와 관련한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삶에 대한 깨달음과 교훈을 얻고 있다.

④ 1행과 2행의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 칠칠치 못한 나는'과 12행의 '지금도 칠칠치 못한 나는'에서 시적 화자는 과거와 현재의 자신의 모습이 변함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필수 개념 ② 시적 대상 / 시적 상황

답 ②

묏버들 가려 꺾어 | 홍랑

작품 해설 이 시조는 이별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임이 자신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으로, 시적 화자는 자신의 분신인 '묏버들'을 통해 임의 곁에 머물고 싶은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작가인 홍랑은 조선 시대 때 기생으로, 함경도 지방으로 부임한 최경창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1년 후 최경창이 서울로 돌아가게 되자,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노래를 지어 묏버들 가지와 함께 보냈다고 한다.

주제 임에게 보내는 사랑

작품 꼼꼼 강의

초장 묏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임에게
▶ 묏버들을 꺾어 임에게 보냄.

중장 자시는 창밖에 심어 두고 보소서
▶ 임이 묏버들을 창밖에 심어 두고 보길 바람.

종장 밤비에 새잎 나거든 나인가도 여기소서
▶ 임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람.

화자는 떠나간 임에게 '묏버들'을 꺾어 보내면서 임을 사랑하는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뿐, 임과의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지 않다.

오답 체기기

① '밤비에 새잎 나거든 나인가도 여기소서'에서 알 수 있듯이 시적 화자인 '나'가 작품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③ 화자는 떠나간 임에게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묏버들'을 꺾어 보내면서 임이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 두고 그것을 보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는 임의 곁에 여전히 있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④ '밤비에 새잎 나거든 나인가도 여기소서'에서 화자는 떠나간 임에게 '묏버들'을 꺾어 보내면서 그것을 자신으로 여겨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묏버들'은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의 마음을 전해 주는 소재이다.

⑤ '묏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임에게'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인 '나'와 시적 대상인 '임'은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08일차 실전 시적 화자 / 시적 대상 / 시적 상황

01 ⑤ 02 ⑤ 03 ④ 04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개념 적용하기 귀뚜라미, 노래

작품 한눈에 귀뚜라미, 매미, 운율, 노래, 감동

01 ~ 04

귀뚜라미 | 나희덕

작품 해설 이 시는 시적 화자를 귀뚜라미로 설정하여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자신의 울음소리가 매미의 강렬한 울음소리에 묻혀 노래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매미의 울음소리가 걷히는 맑은 가을날 자신의 울음이 노래가 되어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 시는 자연물의 의인화, 동일 시구 및 의문형 종결 표현의 반복,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의 사용, 다른 대상과의 대조를 통해 작품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자신의 노래가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함.

작품 꼼꼼 강의

1연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 매미 소리에 묻힌 '나'의 울음

2연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 있다
귀뚜르르 뚜르르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보내는 '나'의 울음

3연 지금은 매미 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걷히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 우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 '나'의 울음이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진정한 노래가 되기를 소망함.

01 표현상 특징 파악

답 ⑤

이 시에는 '매미 소리', '내 울음', '귀뚜르르 뚜르르'라는 청각적 심상과 '차가운 바닥'이라는 촉각적 심상은 나타나 있지만, 코로 냄새를 맡는 듯한 느낌을 주는 후각적 심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챙기기

① 2연의 '귀뚜르르 뚜르르'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이다.

② 이 시는 귀뚜라미를 '나'로 의인화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또 3연의 '맑은 가을이 /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에서는 계절인 '가을'을 의인화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③ 이 시는 '나(귀뚜라미) ↔ 매미', '울음 ↔ 노래' 등의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3연과 4연에서 '있을까'라는 의문형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02 화자의 정서와 태도 파악 시적 화자 / 시적 대상 / 시적 상황

답 ⑤

이 시의 화자는 시인 자신이 아니라 귀뚜라미로 설정되어 있다. 또 1연의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에서 화자는 자신의 울음소리가 노래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 매미의 울음소리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챙기기

① 2연의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그러나 나 여기 살아 있다 / 귀뚜르르 뚜르르 보내는 타전 소리'에서 화자인 '나'는 귀뚜라미임을 알 수 있다.

② 2연의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 있다'에서 고통스러운 현실('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콘크리트 벽 좁은 틈' 등)을 견디어 내고자 애쓰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③ 이 시는 1연의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시적 화자인 '나(내)'가 시 속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겉으로 드러나 있다.

④ 3연의 '발길에 눌려 우는 내 울음도 /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에서 화자는 자신의 울음소리가 누군가의 가슴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03 시어 및 시구의 의미 파악

답 ④

㉠은 '매미 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로 여름이다. 1연의 '매미 소리에 묻혀 / 내 울음 아직은 노래가 아니다.'에서 알 수 있듯 매미의 강렬한 울음소리에 묻혀 있기는 하지만, 귀뚜라미는 여름에도 자신의 울음소리를 내고 있다. 단지 '맑은 가을'이 되어 매미 소리가 걷히면 자신의 울음이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 챙기기

① ㉠은 '매미 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즉 여름으로, 그 소리가 걷히는 ㉡ '가을'과는 대조가 되는 계절이다.

② 3연의 '지금은 매미 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 그 소리 걷히고 맑은 가을이 ~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에서 ㉡ '가을'은 매미의 울음소리가 걷히는 계절임을 알 수 있다.

③ '지금은 매미 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에서 ㉠은 여름이며 매미의 울음소리가 강하게 들리는 계절임을 알 수 있다.

⑤ 3연의 '맑은 가을이 ~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 발길에 눌려 우는 내 울음도 /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에서 ㉡ '가을'은 귀뚜라미가 자신의 울음이 노래가 되기를 바라는 계절임을 알 수 있다.

04 작품의 주제 파악 시적 화자 / 시적 대상 / 시적 상황

답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이 시에서 화자인 귀뚜라미는 매미의 강렬한 울음소리에 묻힌 자신의 울음소리가 노래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매미의 울음소리가 걷히는 맑은 가을날,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의 가슴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본문 061쪽

어휘 확인

1 가리다 2 흉물 3 시절 4 타전 5 칠칠하다